# "가난한 지자체 교육 투자 말라" "전남 16개 시군 교육 비상

■ **지자체 교육경비 제한액**〈단위:원〉



행자부 교육경비 보조 제한 조치…거부땐 국고지원 중단 나주 42억, 담양·장성 19억, 강진 18억 등 전남 215억 학력제고사업·창의적체험활동·방과후활동 포기 불가피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지역 16개 시· 군의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을 것으로 우 려된다.

정부가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동안 지자체 지원으로 진행됐던 학력제고 사업과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적성교육 등을 포

기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규모로는 215 억여원에 달한다.

특히, 해당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재정형편이 어려운 곳이어 서 공교육조차 빈익빈부익부를 부추긴 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남도교육청 산하 전남교육정 책연구소가 내놓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의 의미와 향후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는 '지방 교육경비 지원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특히 올 상반기 중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실태를 점검, 법령 위반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를 지원한 액수만큼 국고 지원을 삭감하겠다는 지침을 통법했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 하는 지자체는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으로, 나주·담양·곡성·구례·고흥· 보성·장흥·강진·해남·무안·함평·영 광·장성·완도·진도·신안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일선 학교에 교 육경비를 지원하는 그만큼 국고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끊기는 교육경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215억원에 달한다. 나주가 42 억원으로 가장 많고, 담양·장성 19억원, 강진 18억원, 진도 15억원, 완도 14억원, 고흥 13억원 등이다.

그동안 전남도교육청은 지자체의 지 원을 받아 학력제고사업과 창의적체험 활동, 특기적성교육, 방과후프로그램 무

"농어촌 취학직전 아동 도시보다 읽기·쓰기 취약"

을 대상으로 문장읽기, 단어쓰기 등 읽

기·쓰기의 기초학습 능력을 검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57점 만점에 49.09점을 기록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아동의 평균은 49.78점으로 중소도시 아동(49.01점)이나

대도시 아동은 읽기에서 34.02점(만점

37점)으로 농어촌 아동(32.14점)보다 2점

정도 높았다. 쓰기의 경우 대도시 아동이

15.75점으로 농어촌 아동(14.80점)에 비

해 1점 정도 더 받았다. 성별로는 여자 어

린이의 평균이 50.50점으로 남자 어린이

(47.63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농어촌 아동(46.94점)보다 높았다.

상 지원 등을 해왔다. 이같은 사업들이 고스란히 중단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구신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교육투자를 해왔던 지자체가 국고 지원 감소에 발목이 잡혀 교육투자를 포기할 처지에 놓였다"며 "공교육정상화를 역행하고 도·농간 교육격차가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구 소장은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중 앙과 지방 모두 교육에 대한 투자가 현재 보다 더 적극적인 형태로 이뤄져야 한 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홍 교수는 "입학 초기에 읽기·쓰기 능력이 부진한 농어촌 아동과 남아들을 위

한 집중적인 보충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반면 숫자 세기, 숫자 비교 등 기초수학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가 발표한 기초수

학 학습능력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 아

동들은 평균 22.55점(26점 만점)을 받았

고 중소도시 아동은 22.28점, 농어촌 아동

은 22.73점을 얻었다. 또 남자 아동은 평

균 22.47점으로 여자 아동(22.43점)과 거

/채희종기자 chae@·연합뉴스

에서는 대도시와 농어촌 아동 간 학습능

력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사건 5주기…"잊지않겠습니다"

천안함 사건 5주년을 1주일 앞둔 19일 오전 해군 장병들이 경기도 평택 해 군 제2함대 사령부에 전시된 천안함 아래에서 묵념하며 조국 수호 의지 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 명하 광주시, 해외서 본격 '문화전당 알리기'

#### 23~29일 중국 취안저우시·칭다오시 방문 홍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고서…기초수학은 비슷

취학직전 농어촌 지역 어린이의 국어기

초능력이 대도시 어린이보다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기초수학 능력은 대도시

와 농어촌에서 비슷하지만 읽기·쓰기에

서는 대도시 아동이 더 잘한다는 연구결

1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홍

혜경 전남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최근 교

육과정평가원이 개최한 '공교육 정상화

정책 포럼'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취학

직전 아동의 읽기·쓰기 학습능력이 농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1

월 중순까지 전국의 만 5세 아동 1404명

촌 아동보다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과가 나왔다.

광주시가 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아 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을 위한 해 외 홍보 활동에 돌입한다. 첫 홍보 대상국 은 민선 6기들어 '차이나 프랜들리' 정책 으로 돈독한 유대 관계를 다지고 있는 중 국으로 정했다.

광주시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지 난해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활발한 문화교 류 활동을 펼친 중국 취안저우시와 올해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칭다오시를 방문해 국립문화전당 알리기에 나설 계 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홍보 사절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 시조성지원포럼 정동채 회장이 단장을 맡 았으며,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광 주출신의 힙합 비보이그룹 '빅사이즈 크 루'와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퓨전 국악 공연 단체 '루트머지'등 25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각 도시에서 한차례씩 현지 언론, 여행사, 관광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관광포럼을 개최하고, 광주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홍보 동영상 상영을 비롯한 한류 공연, 세미나 등을 통해

문화전당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또 유 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택해 춤과 음악 등으로 현지인들에게 광주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동채 단장은 "광주의 이벤트를 해외에 알기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해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짧은 방문 기간인 만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물론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광주의 메가 이벤트를 중국 내에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기법 등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문화전당 콘텐츠 준비상황 공개하라"

#### 광주 시민·문화단체 7곳 성명

광주지역 7개 시민·문화단체는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아시아문화개발원(개 발원)은 지난 1월 진행한 평가단의 평가 내용과 함께 현재 준비된 콘텐츠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7/10FF 고속구었다. 공동성명을 낸 단체는 광주민예총·광 주미협·참여자치21 등으로, 이들의 주장은 개발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업무진단평가결과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콘텐츠(공연,전시 프로그램 등)의 준비상황을 공개하라는 요구다.

이 단체들은 "아시아문화원에 문화전 당 5개원에 위탁하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개발원의 가장 큰 설립 목적은 문화전당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으나 개발원 설립 이후 3년간 과정을 보면, 설 립 목적에 걸맞게 운영되었는지 의문"이 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발원은 문화창조원을 자기 작품으로 채우는 신임 감독의 콘텐츠 기 획안을 수정하라"며 "창조원의 예술감독 은 콘텐츠를 기획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 는 자리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는 ᆻ을 구 없는 글 이디고 것같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